



오스트리아

비엔나

클 사진 | 허용선 | 건강칼럼니스트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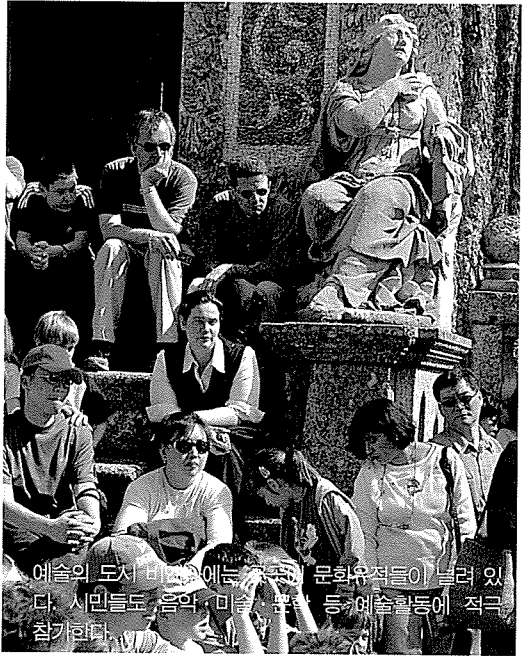
세계 215개 도시를 대상으로 장차 경제, 사회, 문화, 보건, 사회, 환경 분야에 걸쳐 평가한 결과 비엔나(Vienna)는 스위스의 취리히에 이어 세계에서 살기 좋은 두 번째 도시로 선정되었다. 유럽 한복판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 비엔나가 무엇 때문에 이런 영광을 갖게 되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비엔나는 거주인구가 약 160만 명이 되는 전통문화의 향기가 높은 도시이다. 예로부터 동서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했으며, 유럽에서 손꼽히는 국제도시로서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아오는 곳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비엔나는 합스부르크 왕조 600년의 역사가 간직된 곳이다. 현재 유럽의 강국인 나섰던 합스부르크의 전성기부터 멸망하기까지 영고성좌의 무대가 되었던 곳인 만큼 찬란한 문화유적이 곳곳에 많다. 과거 오스트리아 제국을 지배한 합스부르크가는 도나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광이 서린 신브룬 궁전. 유네스코 선정 세계문화유산이다.

로 영토의 확장정책을 추진했다. 1440~1493년 재위한 프리드리히 3세 때 절정기를 맞이했으며, 막시밀리안 1세(재위 1493~1519년)는 다시 네덜란드·북(北)티롤 등을 병합하는 한편, 혼인정책에 의해 스페인 왕국과도 통합했다. 여성이지만 뛰어난 황제였던 마리아 테레지아는 재정의 재건과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는 등 나라를 잘 다스렸으며 정치적인 수완도 뛰어났다. 자녀를 16명이나 두었으며, 프랑수아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도 그녀의 딸이었다. 여제의 사후 합스부르크 왕가는 주변 강국의 등장으로 점차 쇠약해졌다.

지리적으로 볼 때 비엔나는 유럽 교통의 요지이다. 유럽 각국의 주요 도시에서 비행기로 1~2시간 정도면 비엔나 국제공항에 도착할 수 있다. 비엔나 국제공항에서 시내까지는 버스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 또한 비엔나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예술의 도시이다. 오랜 역사를 통해 이룩된 찬란한 문화유산이 널려있다. 뛰어난 예술가들도 많이 배출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모차르트이다. 어릴 때부터 '음악의 신동'이라고 불리었던 모차르트는 콘서트를 열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간 것이 비엔나 생활의 시작이었다. 머리 분을 뿌린 하얀 가발과 어린이다운 파란 웃웃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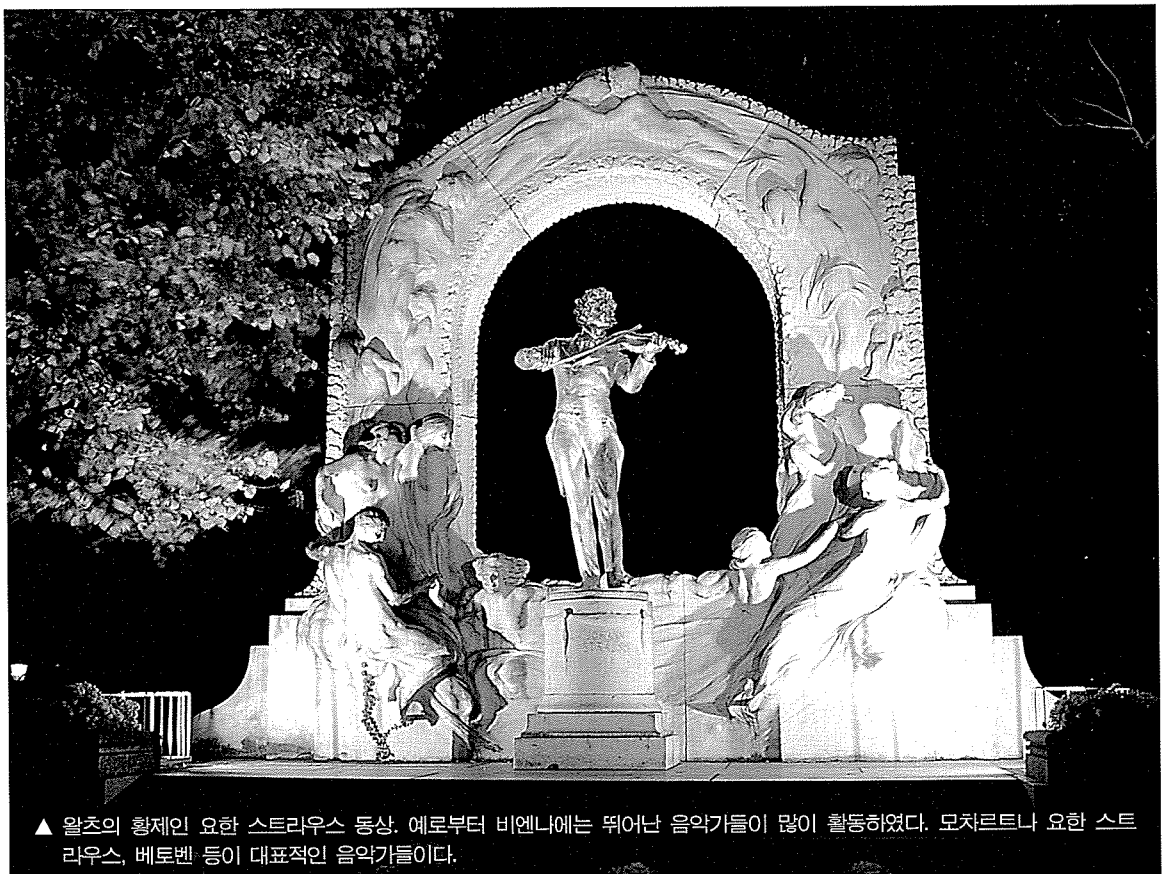
예술의 도시 비엔나에는 찬란한 문화유산들이 널려 있다. 시민들도 음악, 미술, 공연 등 예술활동에 적극 참가한다.

림으로 건반 앞에 앉은 8살의 모차르트를 그린 당시의 초상화는 소년의 순진한 기쁨과 함께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준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그를 껴안아 주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복도에 넘어진 소년 모차르트를 일으켜 무릎에 앉힌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모차르트가 비엔나에서 활동한 동안에 작곡한 걸작 중에는 ‘피가로의 결혼’과 교향곡 ‘주피터’ 등이 있다. 그러나 비엔나에서 모차르트의 성공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빈 사람들은 그의 음악의 진가를 인정하지 않았고 후원자였던 황제 요제프 2세마저 죽자 그는 혹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려야 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한 진혼곡은 미완성인 채 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건강과 정신 상태는 극도로 피폐해 있었다. 결국 그는 35세의 짧은 일기로 비문조차 없는 비엔나 공동 묘지에 버려지듯 묻혀야만 했다. 스스로 음악과 음악가를 존중한다고 자처해온 비엔나가 불멸의 위대한 한 작곡가를 시궁창 속에 던져버린 것이다.

문화의 도시답게 비엔나에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문화유산도 몇몇 있다. 잘 알려진 곳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역사를 간직한 쇤브룬 궁전이다. 쇤브룬 궁전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궁전으로, 베르사유 궁전에 견주어 만들어진 화려한 건축물이다. 1569년에 막시밀리안 2세가 수렵장으로 쓰기 위해 동물원과 정원을 만들었던 데서 기원한다. 1683년 터키군에 의해 궁전은 일부 파괴되었으나 그 후 보수작업을 거쳐 1713년 이후에는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완공되었다.

쇤브룬 궁전의 외벽은 크림색이고 내부는 18세기 후반에 마리아 테레지아가 수집한 동양의 자기나 칠기, 페르시아의 회화 등을 주축으로 하여 우아하고 호화로운 로코코식으로 장식되었다. 모두 1,441개의 방이 있으나 39개



▲ 왈츠의 황제인 요한 스트라우스 동상. 예로부터 비엔나에는 뛰어난 음악가들이 많이 활동하였다. 모차르트나 요한 스트라우스, 베토벤 등이 대표적인 음악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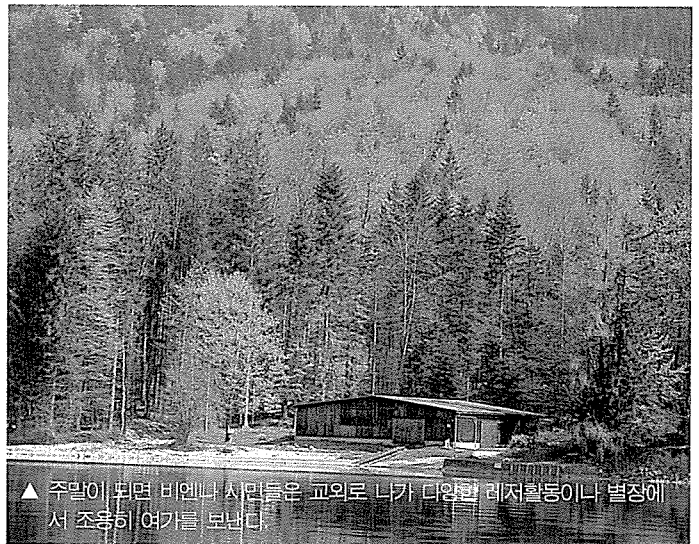
▲ 비엔나 시민들의 정신적 고향 같은 스테판 대성당. 옥상에 오르면 비엔나 시내가 한 눈에 들어온다.

생긴 비엔나 슈니첼을 안주삼아 먹는 맛은 그만이다. 아코디언이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악사가 다가와 노래를 불러주는데, 에델바이스나 들장미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들을 연주할 때면 더욱 분위기가 고취된다.

아름다운 유럽의 전원지대에 자리한 비엔나는 치안이 안정되어 있어 밤에 돌아다녀도 크게 걱정이 안 된다. 또한 국민소득이 높아 생활에 여유가 있고 다양한 음악과 문화행사들이 많아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점 등이 세계의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을 것이다. ㉔

의 방안이 공개되고 있다. 궁전의 정원은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는데 일조를 한 곳이다. 수많은 꽃들과 나무, 조각상들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정원은 전형적인 바로크식 양식으로 꾸며져 있다. 기하학적인 화단과 잔디, 양쪽으로 짙은 나무들로 터널을 이룬 가로수길 등이 인상적이다. 또한 드넓은 정원 요소요소에는 아름다운 샘, 분수 그리고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한 44개의 대리석상이 자리하고 있으며 초목이 무성하여 다람쥐나 들새 등 작은 동물들도 많이 서식하고 있다.

700년 전에 지어진 슈테판 대성당은 비엔나의 상징적 건축물로 구시가지의 중심에 우뚝 서있다. 오스트리아에서 으뜸가는 고딕 양식의 교회로 높이 70미터인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를 수 있다. 비엔나에서 맛보는 달콤한 백포도주는 기억에 새롭다. 와인 선술집인 호이리게에서 순대처럼



▲ 주말이 되면 비엔나 시민들은 교외로 나가 다양한 레저활동이나 별장에서 조용히 여가를 보낸다.